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</div>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7.16.(목)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권 주 성(02-2100-2591)	담 당 자	박 보 란 사무관 (02-2100-2521)	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박 상 원(02-3145-8200)		장 항 필 팀장 (02-3145-8204)	

**제 목 :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세부
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**
[이데일리 7.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☐ 이데일리는 7.16일 「“삼성 등 복합금융그룹, 전이위험 높아... 자본 더 쌓아라”」 제목의 기사에서
 - “금융위는 필요자본 구성요소인 그룹위험의 가산 비중을 기존 추가로 최대 50% 가중치를 더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 그룹 위험에 대한 반영치가 기존의 100%에서 최대 150%로 높인다는 것이다.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